

2017년도 제2차 회의록(요약)

2017. 4. 28.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1. 회의명

- 2017년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2. 회의소집자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3.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17. 2. 28.(화) 08:00~9:20
- 장 소 : 더플라자 호텔 오키드홀(4층)

4. 출석위원 및 회의 참석자

□ 출석위원 : 14인

- | | |
|---------------|-------------|
| ○ 보건복지부 | 정진엽 위원장 |
| ○ 기획재정부 | 代 이찬우 (최상목) |
| ○ 국민연금공단 | 이원희 위원 |
|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김병욱 위원 |
| ○ 바른사회시민회의 | 조성봉 위원 |
|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이수현 위원 |
| ○ 중소기업중앙회 | 김광희 위원 |
|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정혜경 위원 |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상호 위원 |
|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이정식 위원 |
| ○ 한국경영자총협회 | 류기정 위원 |

- 전국경제인연합회
- 한국개발연구원
-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 송원근 위원
- 김준경 위원
- 이인상 위원

□ 기타 참석자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
-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운용전략실장
-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운용지원실장
- 대주회계법인

- 장재혁(간사)
- 양윤석
- 강면욱
- 이수철
- 송호동
- 백진환

5. 회의진행순서

- 개 회
- 2017년도 제1차 회의록 보고 및 채택
- 의결안건 심의 및 의결
- 보고안건 논의
- 폐 회

6. 상정안건

의안번호	안 건 명
의결 17-2	2016년도 국민연금기금 결산(안)
의결 17-3	국민연금기금 위탁운용 목표범위 조정(안)
보고 17-5	2017년도 제1차 회의록
보고 17-6	지방이전에 따른 인력이탈 방지 대책
보고 17-7	2016년도 12월말 국민연기금 운용현황(잠정)

7. 토론요지

□ 의결 제17-2호 : 『2016년도 국민연금기금 결산(안)』

- (이정식 위원) 32p 실무평가위원회 심의결과 회계감사에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한 설명 바람.
- (장재혁 간사) 회계감사를 하는데 드는 시간을 좀 더 충분히 컸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음.
- (대주회계법인 백진환) 일반적으로 상장법인은 규모가 크고 분기별, 반기별 보고를 하기 때문에 감사시간이 10,000시간 가까이 되고, 감사보고서도 100억이 될 때도 있음. 그런데 여기는 감사원 감사도 받고 국가회계 기준으로 하고 심의를 하기 때문에 약 1,100 시간을 투입해서 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인데 다른 데에 비해서 감사보수도 작고, 투입시간도 적은 것이 지적이 있었음.
- (정진엽 위원장) 국회에서도 결산감사를 받기 때문에 여러 군데서 감사받는 내용임.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016년도 국민연금기금 결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 의결 제17-3호 : 『국민연금기금 위탁운용 목표범위 조정(안)』

- (이정식 위원) 합리성은 있어 보임. 실평위에서 다른 의견은 없었는지 설명 바람.

- (장재혁 간사) 특별히 다른 의견 없었음.
- (代 이찬우) 전반적으로 '14년 해외투자 전략, 패시브 운용을 늘리는 그 방침은 맞는 방향인 것 같음. 그런데 85p 위탁 비중을 줄이더라도 실제 기금규모가 늘어나다보니 전체기금 레벨상으로는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일 것임. '14년 전략으로 했을 때 현재 기금운용본부가 추진하려는 목표가 어떤 것인지, 확실한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음. 두 번째 위탁사 선정에서 해외 위탁사인지, 국내위탁사인지 하는 부분도 이슈가 있음. 그렇기 때문에 국내운용사 쪽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음. track record 가 없다고 해서 계속 해외운용사로 가게 되면 국내운용사는 자꾸 뒤처지게 돼 있음. 물론 수익률을 기준으로 봐야 되긴 하지만 기금운용본부가 위탁사와 위탁 목표, 레벨 그다음에 위탁부분에 있어서 국내와 해외위탁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해 주는게 좋다고 생각함.
- (정진엽 위원장) 우선 운용사는 위탁할 때 국내운용사를 점차 늘려가고 있는지 본부장께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람.
- (기금운용본부장 강면욱)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음. 국내위탁사로 해외에 투자를 맡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인프라가 돼야 맡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어느 정도 자격요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정해 놓고 거기에 부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음. 그렇지만 향후에 그 부분을 좀 더 완화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완화해서 해외의 위탁사들도 그 기준에 부합이 되는 순간 너무나 많은 경쟁자가 생긴다는 그런 맹점은 있음. 그래서 향후에 좋은 방안을 찾아서 지속적으로 국내위탁사들도 선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정진엽 위원장) 이찬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두 가지 내용은 기금본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여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광희 위원) 해외주식에 패시브 운용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음. 같은 맥락에서 해외채권에 지금 만기보유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설명 바람.
- (기금운용본부장 강면욱)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 (김광희 위원) 만약에 만기보유 비중이 높으면 크게 관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거래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해외지사에 인력도 증원할 것이고, 그렇다면 해외주식과 마찬가지로 해외채권도 패시브 운용 쪽을 늘리는 것과 같은 방향이지 않을까 해서 여쭙봄. 해외채권에 대한 위탁운용 비율이 50%~70%정도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높은 것 같음. 주식보다는 직접 운용이 편하지 않을까 해서 여쭙 봄.
- (기금운용본부장 강면욱) 해외채권 액티브가 100%라고 보면 됨. 지금 포션을 보시면 4.1% 중에 직접이 1.8%, 위탁이 2.3%이니 거의 반반으로 보면 됨.

- (김준경 위원) 2010년 이후 해외주식 위탁운용 비중이 계속 축소돼 왔다고 설명 들었음. 중장기적으로는 어느 정도까지 축소를 고려하고 있는지, 두 번째 국내 위탁수수료가 0.2%, 해외 위탁수수료 0.38%, 다른 연기금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 위탁수수료의 적정성, 그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궁금함. 그리고 해외주식 위탁운용 비중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해외주식 투자비중 확대에 의해 위탁운용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위탁운용 스케일이 커지는 것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서 수수료 절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위탁운용 수수료율을 협상할 때 운용사 성과에 기반한 신규위탁운용금액 배분 계획을 미리 명확하게 공시한다면 위탁수익률 제고에 기여할 수 있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이 듬.
- (기금운용본부장 강면욱) 해외주식 위탁을 줄이는 부분은 운용역량이라든가 시장상황이라든가 목표수익률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향후에 계속 변화를 줄 생각임. 그다음 국내 위탁수수료 부분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다른 peer group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편이고 해외도 수수료가 그렇게 높지 않음. 다른 peer group에 비해서도 그 수수료 부분은 여러 곳에서 감사도 받고 관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항상 낮추려고 노력하는 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음.
- (정진엽 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시면 「국민연금기금 위탁운용 목표범위 조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고 제17-6호 : 『지방이전에 따른 인력이탈 방지 대책』

- (이인상 위원) 99p 퇴직률이 2014년도 9명, '15년도 10명, '16년도 30명 그리고 올해 2월까지 11명이 의사를 밝혔다고 하는데 꼭 지방이전과 관련됐다고 생각하진 않음. 이렇게 높다는 것은 정주여건이라든가 보수체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듦. 무슨 얘기냐면 2015년도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 과정의 문제 때문에 이사장님이 기소 돼 있음. 직원들이 일을 하는데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이 조직문화고 조직에 대한 자긍심인데, 이런 부분부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듦. 물론 인력충원 필요함. 특히 해외투자 부분도 직접운용을 늘린다고 하니 당연히 인력이 필요한 것에는 동의를 하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조직문화임. 그리고 특히 책임져야 될 분들의 도덕적 해이가 대단히 심각하다는 것임. 이것은 국민들이 마지막으로 기금을 내고, 퇴직을 하고 그 돈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과연 국민연금에 돈을 맡길 수 있을지, 국민연금 운영에 있어 독립적 보장이 돼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부분을 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함. 지금 특검에서 합병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나왔을 때 주주총회에서 합병 의결된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할 경우 기금운용본부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논의해야 될 것 같음. 기관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문화가 필요하고, 이사장님의 구속 그런 부분부터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 정치권이나 재계에 흔들리지

않고 기금운용본부가 독립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시스템을 법이 필요하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좀 더 고민하였으면 함.

- (정진엽 위원장) 조직문화가 중요하다는 것은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합병에 관한 문제는 앞으로 지금 재판 중인데 그 결과를 보면서 해야 되지만 별개로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에 대해서는 그동안 국회에서 여러 차례, 벌써 오랫동안 여러 가지 법을 만들고 논의를 해왔는데도 결국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문제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의뢰해서 연구를 하고 있음. 연구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듦.
- (이정식 위원) 전문가에게 용역 맡긴다고 했으니 잘 할 것으로 보고, 기금을 운용하는 분들을 잘해 주자는데 이의는 없음. 다만 지난번 회의때 비물질적 보상을 포함해서 정말 효과적인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91p 상황과 99p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이 현황과 대책이 서로 연계성이 미흡한 것 같음. 여기 보면 주로 우리가 지난번에 지적했던 것이 민간하고 맞춰서 임금으로 보상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임. 그런데 국민연금이라는 것이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대안 내지는 중간 발판지점으로 충분히 활용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퇴사자들을 보면 고위 직급이고 그리고 대안이 있는 분들이고 그만두는 이유가 상당 부분이 전주로 갔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책은 성과보상이라든지 직무급이라든지 이렇게 가고 있음. 사실 중요한 것은 조직문화 개선 등 프라

이드를 높이는 것일 텐데 현황과 원인과 대책이 연계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됨.

- (정진엽 위원장) 예년에 비해서 2배 이상 이탈이 됐고 이것은 전 주로 이전하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테고 조직문화도 문제가 될 테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여기에 반영이 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보통 (안) 가지고는 해결이 되기 어려울 것 같아서 나름대로 획기적인 (안)이라고 생각하고 만든 것 같은데 이원회 직무대행께서 한번 말씀하시기 바람.
- (이원희 위원) 99p 두 번째 퇴직사유 현황을 분류해 놓았음. 전주 이전 이유 36.7%, 기타가 있음. 국민신뢰제고위원회의 국민소통참여단에서 구체적인 내용 받아 추가대책을 마련한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한 공공기관들은 전국조직을 들고 있음. 국민연금공단만 해도 제도권은 109개의 지사가 전국에 있기 때문에 로테이션도 가능하고 또 이동도 가능한데, 기금운용본부와 연구원처럼 전 주로 한번 이전하면 직업을 바꾸기 전에는 있어야 되는 직원들의 심정은 특별히 좀 헤아려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음. 진정성을 갖고 기금운용본부가 법률에 의거해서 이전을 해오고 또 국민들이 우려하고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도 굉장히 투명성과 독립성 부분에 대해서는 설립한 내내 해왔는데 여전히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간을 갖고 국민신뢰제고위원회 안에 기금운용개선단이 기금운용본부장이 단장으로 돼 가지고 지금 운영중으로, 윤리 부분, 운영 부분에 대한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정리되는 대로 기금운용본부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음. 삼성 관련된 건은 재판을 조금 더 지켜봐 주고, 그리고 국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엄중하게 생각하고 최대한 역량을 더 배가시켜 국민들이 믿고 맡기고 또 노후가 잘 보장되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음.

- (류기정 위원) 99p 퇴직 사유별 현황 중 이직은 자연스러운 이직인지 지방이전과 연관이 돼 있는 것은 아닌지 설명 바람.
- (이원희 위원) 말을 안 했을 수도 있음. 꼭 전주이전 때문은 아니고, 이직을 하고 싶었다는 내용을 그렇게 구분해 놓았음.
- (류기정 위원) Contingency Plan까지 마련 등 고민을 하셨는데, 교육이라든가 다양한 측면에서 근무자들이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은 이해 됨. 걱정되는 것은 나중에 이전으로 인해서 국민들한테 주는 편익하고 서울에 남아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 허브 차원에서 일 할 수 있는 여건이 된 상황에서의 편익하고 봤을 때 Contingency Plan에 지역 이전 문제를 다시 한번 재검토하는 부분도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림.
- (정진엽 위원장) 법에 “전라북도로 이전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음. 기금운용본부의 독립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법안들이 발의가 돼 있는 상황이라 그것과 같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다른 의견 없으면 이렇게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음.

□ 보고 제17-7호 : 『2016년도 12월말 국민연금기금

운용현황(잠정)』

- (이정식 위원) 「2017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운영계획(안)」이 반영이 돼서 10월까지 나온 것을 보니 대단히 좋음. 두 번째는 제4차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위원회가 구성되고 일정이 4월 초까지는 확인이 될지 말씀을 해 주시고, 세 번째 법 제73조2 성인지적 결산보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람. 마지막으로 다른 기금도 1,100시간 정도로 감사를 하는지 비교를 해서 더 실효성 있게 감사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
- (정진엽 위원장) 재정추계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을 하려고 함.
- (장재혁 간사) 위원회 구성은 6월경에 하려하고 운용계획은 4~5월 쯤 위원회 할 때 보고를 드리겠음.
- (정진엽 위원장) 다른 기금에서는 감사를 어느 정도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음.
- (이원희 위원) 성인지적 재정보고 부분은 준비를 해서 추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1,100시간에 대해서는 공공재원 중에 한번 비교를 해서 추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음.
- (정진엽 위원장) 2017년도 제2차 기금운용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음.

8. 의결사항

의안번호	안 건 명	결과
17-2	2016년도 국민연금기금 결산(안)	의결
17-3	국민연금기금 위탁운용 목표범위 조정(안)	의결